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청소년(10대) 보험사기, 전년대비 83.5%의 높은 증가율 기록

- 2007년 보험사기 혐의자 수는 전년대비 15.6% 증가한 30,922명으로 나타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, 청소년(10대)은 전년대비 83.5%가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.
 -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청소년의 비중은 1.9%인 578명으로 낮은 수준이지만, 최근 들어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보험사기가 자칫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.
- 이러한 청소년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및 가공사고가 249명으로 가장 많으며, 다음으로 보험사고 후 보험가입이 174명인 것으로 나타남.
- 청소년 보험사기의 특징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보험상태의 이론차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바꿔치기한다거나,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소비심리를 악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 집단에 이용당하는 형태임.
 - 또한 일부 부도덕한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고의 상해사고 등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시도하기도 함.
 - 이렇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건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과 나아가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보험사기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이론자동차 매매 증여시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방안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예정임.
 -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강좌 개최시 보험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 알릴 방침이며,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.

(급증하는 청소년 보험사기, 사회문제화 우려-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, 12/10)